

2015. 2. 23(월) ~ 3. 3(화) / 7박 9일  
헝가리 · 오스트리아 · 체코

= 헝가리 · 오스트리아 · 체코 =  
**공 무 국 외 연 수 보 고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1. 여행기간 : 2015. 2. 23(월) ~ 3. 3(화) / 7박 9일
2. 여 행 국 : 헝가리 · 오스트리아 · 체코
3. 인 원 : 4명
4. 보 고 자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 명 |
|--------------------|---------------|-----|-----|
| 대전대덕구의회<br>사회도시위원회 | 사 회 도 시 위 원 장 | 박현주 |     |
| 대전대덕구의회<br>사회도시위원회 | 부 의 장         | 윤성환 |     |
| 대전대덕구의회<br>사회도시위원회 | 의 원           | 이금자 |     |
| 대전대덕구의회<br>사회도시위원회 | 의 원           | 문성원 |     |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 3 . .

# 차 례

## I. 연수 개요 ..... 3

- |             |     |
|-------------|-----|
| 1. 연수 목적    | / 3 |
| 2. 동기 및 배경  | / 3 |
| 3. 연수국 및 일정 | / 3 |
| 4. 연수자 명단   | / 3 |
| 5. 연수 중점분야  | / 4 |
| 6. 세부 연수일정  | / 4 |

## II. 연수국(도시) 현황 ..... 7

- |          |      |
|----------|------|
| 1. 헝가리   | / 6  |
| 2. 오스트리아 | / 8  |
| 3. 체코    | / 11 |

## III. 주요 기관 방문 ..... 14

- |                             |      |
|-----------------------------|------|
| 1. 지하철 박물관, 도시철도, 트램 현장시찰   | / 14 |
| 2. 부다페스트 FKF 쓰레기소각장(열병합발전소) | / 16 |
| 3. 비엔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 / 18 |
| 4. 귀싱 테크놀로지센터(EEE)          | / 20 |
| 5. 프라하 하벨 재래시장 현장시찰         | / 23 |

## IV. 결론(시사점) ..... 24

# I. 연수 개요

## 1. 연수 목적

선진국의 지방행정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 등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현안과 관련한 현장을 체험하고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형태로의 방향 모색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 제시

## 2. 동기 및 배경

사회도시 전반의 적극적 개선 의지로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의 이질적 과제를 통합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필요

## 3. 연수국 및 일정

- 기 간 : 2015. 2. 23(월) ~ 3. 3(화) / 7박9일 ※ 세부일정표 참조
- 대상국가 : 헝가리 · 오스트리아 · 체코

## 4. 연수자 명단

- 인 원 : 6명(의원 4명, 수행 직원 2명)

| 구 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
|-----|---------|-------|-----|-----|
| 연수자 | 소 계     |       | 6명  |     |
|     | 사회도시위원회 | 위원장   | 박현주 | 여   |
|     | 사회도시위원회 | 부위원장  | 윤성환 | 남   |
|     | 사회도시위원회 | 의 원   | 이금자 | 여   |
|     | 사회도시위원회 | 의 원   | 문성원 | 남   |
|     | 수 행 원   | 행정5   | 양성현 | 남   |
|     |         | 사무운영7 | 김원태 | 남   |



## 5. 연수 중점분야

- 혐오시설을 선호시설로 바꾼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모를 체험
- 대중교통시설(도시철도, 트램)을 실제 체험하고 이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에 대한 성과를 국내 실정과 비교 분석
-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센터를 방문하여 생태 도시로의 발전 방향 모색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유럽 재래시장의 운영실태 비교 시찰

## 6. 세부 연수일정

| 월 일<br>(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업 무 내 용/방문기관                                                    | 접촉예정인물<br>(직책·성명포함)              |
|----------------|-------|-------------|-----------------------------------------------------------------|----------------------------------|
| 1일차<br>2/23(월) | 인천    | 부다페스트       | · 인천 출발(12:45), 부다페스트 도착(21:35)<br>· 현지 여건 파악 및 일정 조정을 위한 내부 토의 |                                  |
| 2일차<br>2/24(화) | 부다페스트 | 부다페스트       | · 현장시찰(교통, 트램·도시철도)<br>: 지하철 박물관&도시철도 탑승<br>· 공식방문(FKF 쓰레기소각장)  | Mr.Marosfalvi<br>Zsofia / 쓰레기소각장 |
| 3일차<br>2/25(수) | 부다페스트 | 비엔나         | · 공식방문(쓰레기소각장, 에너지재생, 관광 자원) : 슈피텔라우쓰레기소각장<br>· 문화탐방            | Mr. Georg<br>Baresch/슈피텔라우소각장    |
| 4일차<br>2/26(목) | 비엔나   | 귀싱<br>잘츠부르크 | · 공식방문(신재생에너지, 에코투어)<br>: 테크놀로지센터(EEE)<br>· 잘츠부르크로 이동           | Frau DI Bodi<br>Katalin<br>/ 귀싱  |

| 월 일<br>(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업 무 내 용/방문기관                                                               | 접촉예정인물<br>(직책・성명포함) |
|----------------|-------|-----------------------------|----------------------------------------------------------------------------|---------------------|
| 5일차<br>2/27(금) | 쾰츠부르크 | 쾰츠부르크<br><br>쾰츠캄머굿<br>쾰츠부르크 | ·현장견학(도시 문화거리 조성 및 상업시설 정비) : 쾰츠부르크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게트라이데<br>·문화탐방 : 쾰츠캄머굿(RHV) |                     |
| 6일차<br>2/28(토) | 쾰츠부르크 | 체스키크롬로프<br><br>프라하          | ·유네스코문화유산 견학 : 성비트교회<br>·공공청사 견학 : 스보르노스티 중앙광장과 시청사                        |                     |
| 7일차<br>3/1(일)  | 프라하   | 프라하                         | ·현장시찰(재래시장 활성화)<br>: 프라하 하벨 재래시장<br>·연수일정 성과 논의를 위한 내부 토의                  |                     |
| 8일차<br>3/2(월)  | 프라하   | 모스크바                        | ·체코 프라하 국제공항 출발(13:20)<br>·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 출발(20:20)                         |                     |
| 9일차<br>3/3(화)  | 모스크바  | 인천                          | ·인천국제공항도착(11:00)                                                           |                     |

## Ⅱ. 연수국(도시) 현황

### 1. 헝가리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국명: 헝가리 공화국</li> <li>• 공용어: 헝가리어</li> <li>•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li> <li>• 인구: 약 9,919,128(2014년)</li> <li>• 정부형태: 공화제</li> <li>• 국민 1인당 총생산: \$13,154(2014년)</li> <li>• 화폐단위: 포린트(Forint)</li> </ul> |
| 국 기                                                                               | 국 장                                                                               |                                                                                                                                                                                                                                                   |

유럽의 중앙 동부, 도나우강 중류에 있는 내륙국으로, 1001년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일부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갔으며, 1946년 공화제를 실시하였다. 1999년 NATO, 2004년 EU에 가맹하였으며, 전체 면적은 93,030 km<sup>2</sup>로,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한 온천국가이며 국토의 3/4이 저평원 지대인 평원국가이기도 하다.

헝가리는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이나 서안해양성 기후가 혼재하며, 남부 일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다. 비교적 온화하고 사계절도 있으며 북위 45.48°~48.35°에 위치하며 연평균 기온은 10.5℃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다. 중부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러시아 남부의 스텝 기후의 점이 지대에 있다. 겨울 평균기온은 -2℃~12℃이고 여름 평균기온은 23℃~25℃이다.

## ♠ 주요방문지 / 부다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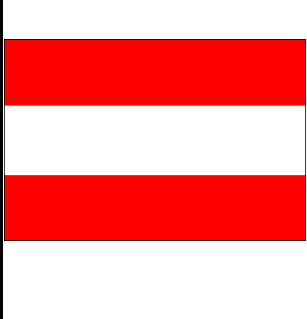


- 원어명 : Budapest
- 위치 : 헝가리
- 경위도: 동경 19° 03' 01" , 북위 47° 28' 19"
- 면적(km<sup>2</sup>) : 525.16
- 인구 : 1,741,041(2011년)
- 시간대 : UTC+1, Summer: UTC+2

헝가리 평야의 북서부, 도나우강 양안(兩岸)에 걸쳐 있으며, 우안의 부다와 좌안의 페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부다는 대지(臺地) 위에 자리하며, 왕궁(王宮)의 언덕·겔레르트 언덕 등이 강기슭 근처까지 뻗어 있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다. 페스트는 저지에 자리한 상업지역으로, 주변지구엔 공장과 집단주택이 들어서 있다. 철도·도로·하천 교통의 요지로 국제공항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은 기계공업이고, 철강·비철야금·화학·섬유·식품 등 공업도 활발하다. 정치의 중심지로서 중앙관공서, 옛 국회의사당 등이 있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과학아카데미·종합대학(에트뵈스로란드대학)·의과·농과·경제 등 단과대학 외에 많은 도서관·박물관이 있다. 그밖에 전통을 자랑하는 음악학교·국립극장 등을 포함한 많은 극장이 있다.

관광지로서의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낀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사적(史蹟)으로는 부다 북부에 로마시대의 유적 아쿠인쿰(Aquincum)이 있다. 부다와 페스트는 원래 별개의 도시로 발달하였다. 부다는 2세기부터 파노니안(Pannonian) 지방의 로마의 군(軍) 주둔지 아쿠인쿰으로 알려졌다. 14세기경부터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가 되고, 페스트도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872년 부다와 페스트는 합병하여 오늘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에 인근 소도시를 합병하여 대(大)부다페스트가 성립되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 2. 오스트리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국명: 오스트리아 공화국</li> <li>• 공용어: 독일어</li> <li>• 수도: 빈(Vienna)</li> <li>• 인구: 약 8,223,062(2014년)</li> <li>• 정부형태: 연방공화제</li> <li>• 국민 1인당 총생산: \$51,183(2014년)</li> <li>• 화폐단위: 유로화(Euro)</li> </ul> |
| 국 기                                                                               | 국 장                                                                               |                                                                                                                                                                                                                                              |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으로, 국명인 오스트리아는 10세기 중엽 동방의 이민족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오스트마르크(Ostmark : 동쪽의 변경)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지역은 중세시대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지였다. 면적은 8만 3870km<sup>2</sup>, 인구는 822만 3062명(2014년 현재), 수도는 빈(Wien)이다.

주민의 91.1%가 오스트리아인이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 등이 3%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며, 종교는 73.6%가 가톨릭교, 4.7%가 개신교를 믿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이 늦어졌으나 1949년부터 시작된 마샬플랜을 바탕으로 1951년 이후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문화와 교육면에서는 독일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2014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4,361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1183달러이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에 있으므로 동쪽에서는 대륙성 기후, 서쪽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두 기후의 접이지대이다. 지중해의 영향은 적어 남쪽 지방에 국한된다. 바람은 북부지방에서는 서풍이, 알프스 동부지방에서는 북서풍 또는 북풍이 강하며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국지적(局地的)인 풍계(風系)가 형성되어 있다. 강수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되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 ♠ 주요 방문지 / 비엔나



- 원어명 : Wien
- 위치 : 오스트리아
- 경위도: 동경 16° 22' 21" , 북위 48° 12' 32"
- 면적(km<sup>2</sup>) : 414.6
- 인구 : 1,731,236(2011년)
- 시간대 : UTC+1, Summer: UTC+2

영어로는 비엔나(Vienna), 체코어로는 비덴(Videň), 헝가리어로는 베치(Becs)라고도 한다. 도나우강(江) 상류 우안에 있는 유럽의 고도(古都)로, 지금도 중부 유럽에서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수백년 동안 대제국의 수도였으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중부 유럽을 동서 방향으로 달리면서 민족·기후·식생 등의 경계를 이루는 알프스·카르파티아 산맥을 관류하고 있는 도나우 강변에 자리 잡고 있다.

BC500년에 켈트 족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도시로 1440년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가 들어오면서 정치, 문화, 예술, 과학과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1805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으며 수도로서의 기능을 독일 베를린에 넘겨주었다가 1954년 독립하면서 다시 수도가 되었다.

베토벤(Beethoven)과 모차르트(Mozart)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꼽히는 슈테판 성당(Stephansdom)과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쉰부른 궁전(Schloss Schonbrunn), 빈 공원(Wiener parks) 등이 유명하다.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ZE), 국제 원자력 기구(IAEA)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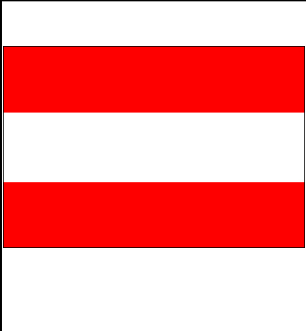
빈의 숲의 작은 골짜기는 계단 모양을 이루는 산지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시역(市域)은 1,215km로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이루는 마르히강까지 펼쳐지는 광대한 마루히 평원에서 반원형으로 높아진 단구면을 포함하여 빈의 숲까지를 가리킨다.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빈의 숲은 건축 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05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5km<sup>2</sup>를 차지하는 이 구역은 주로 사암(砂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프스·카르파티아 산맥이 끊어지는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북서쪽의 중부 유럽 기후에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며 강수량도 비교적 적은 동쪽의 대륙성 기후로 옮겨지는 점이지역(漸移地域)에 해당한다.

1월 평균기온은 0.4℃, 7월은 19℃이며 한낮에는 24℃가 된다. 연강수량은 691mm 내외이며 여름에 다소 많이 내린다. 식생도 기후를 반영하여 서쪽의 발틱 식물구와 동쪽의 파노니엔 식물구의 점이지대를 이룬다. 빈의 숲 서쪽은 너도밤나무의 숲이 무성하다. 동쪽과 남쪽은 떡갈나무와 흑송 숲이 무성하여 좋은 대조를 이룬다.



## 2. 체코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국명: 체코 공화국</li> <li>• 공용어: 체코어</li> <li>• 수도: 프라하(prague)</li> <li>• 인구: 약 10,627,448(2014년)</li> <li>• 정부형태: 공화제</li> <li>• 국민 1인당 총생산: \$18,985(2014년)</li> <li>• 화폐단위: 코루나(Koruna)</li> </ul> |
| 국 기                                                                               | 국 장                                                                               |                                                                                                                                                                                                                                              |

체코 공화국, 줄여서 체코는 중앙유럽에 있는 공화국이다. 북서쪽과 서쪽은 독일, 남쪽은 오스트리아, 남동쪽은 슬로바키아, 북동쪽은 폴란드와 닿아 있다. 수도는 프라하이고, 주요 도시로 브르노, 오스트라바, 즐린, 플젠 등이 있다. 크게 체히, 모라바, 슬레스코 세 지방으로 나뉜다. 체히는 라틴어로 '보헤미아', 모라바는 '모라비아', 슬레스코는 영어식으로 '실레시아' 또는 독일어로 '슐레지엔'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코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되었다. 1999년 3월 12일에는 NATO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 5월 1일에는 유럽 연합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이 나라의 민족구성은 대부분이 서슬라브족에 속하는 체코인으로 인구의 90% 정도를 유지한다. 슬로바키아인은 두 번째로 주요한 민족이다. 체코는 보안 업체로 유명하다. 전 세계 백신프로그램 시장 점유율 각각 세계 1위, 2위인 Avast와 Avg라는 보안 업체들이 있다.

체코의 대부분 지역은 습기 많은 대륙성 기후이므로 여름엔 따뜻하고 비가 많으며, 겨울엔 춥고 눈이 많다; 완만한 기온 변화를 보인다. 가장 더운 달은 7월이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이다. 12월에서 2월까지의 저지대도 영하로 떨어지고 산악지방은 정도가 더 심하다. 사실상 '건기'라는 것은 없다. 겨울에는 40에서 100일정도 눈이 내리고(산간지방은 130일 정도), 저지대는 안개까지 낀다.



## ♠ 주요 방문지 / 프라하



- 위 치 : 체코 중서부
- 경위도 : 동경 14° 25' , 북위 50° 05'
- 면적(km<sup>2</sup>) : 496.41
- 인구 : 1,262,106명 (2011년)
- 시간대 : UTC+1, Summer: UTC+2

영어·프랑스어로는 프라그(Prague), 독일어로는 프라크(Prag)라고 한다. 체코 중서부, 블타바강(江:몰다우강) 연변, 라베강(江:엘베강)과의 합류점 가까운 곳에 있다. 체코 최대의 경제·정치·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시내를 흐르는 블타바강은 너비가 100~300m이며 몇 개의 강이 있다.

비교적 따뜻하며 습도가 낮고 연 강수량은 508mm이다. 프라하분지에는 BC 4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슬라브인(人)이 들어온 것은 5·6세기로 9세기 말에 성이 축조되었다.

11세기에는 구(舊)시내 광장에서 교역이 시작되었고 12세기에는 이미 중부유럽 최대의 도시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14세기에 이르자 카렐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는 더욱 발전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당시의 인구는 4만으로 추정된다. 14~15세기에는 후스전쟁의 싸움터가 되었다.

15~16세기에는 고딕 건축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정치적인 의미는 상실하였다. 17세기에는 바로크 건축이 번성하였고 18세기 말부터 다시 수공업 등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인구도 8만을 헤아렸다. 그 후에도 인구는 늘어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帝國)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한 이래 수도가 되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의 이른바 2월 사건, 1968년 1월의 '프라하의 봄'으로 부르는 자유화운동이 소련 등 바르샤바 조약군(軍)의 침입으로

짓밟힌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체코의 수도가 되었다.

공업도시로서의 프라하에는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전국 공업생산의 10% 가량을 생산한다. 주요한 것은 기계공업으로, 국영기업의 CKD(전기기관차 등)와 테슬라(모터·방송관계) 등이며 인쇄공업도 중요하다. 식품공업으로는 스미호프의 맥주, 프라하 햄이 유명하고, 그 밖에 의복·제지·화학(주로 타이어) 공업 등이 영위되고 있다. 유럽철도의 대중심지로, 유럽의 각국과 연결되며 하항(河港)이다. 근년에는 항공망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10개의 구(區)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외지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시에는 대통령관저·정부·의회 등의 정부기관 및 국제적인 기관 등을 비롯해서 과학아카데미·프라하대학교(1348)·음악대학·도서관·스트라호프 민족자료관(옛 수도원)·박물관·극장·천문대·스포츠시설 등이 집중해 있다.

### Ⅲ. 주요 기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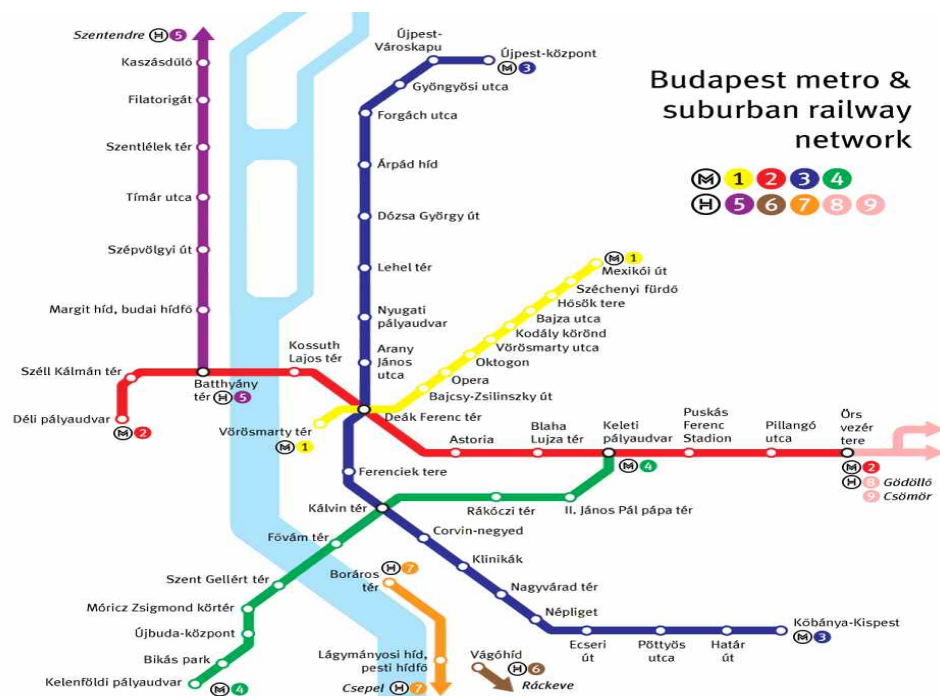
#### 1. 부다페스트 현장시찰(지하철 박물관 및 트램 시승)

○ 일 시 : 2015. 2. 24(화) 09:00 ~ 10:00

○ 방문지 소개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1896년 5월 유럽대륙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국가로서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Földalatti' or the Millennium Underground로 알려진 1호선은 세계최초의 전기방식 지하철로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현재 오래된 역들은 아름답게 복구되었고 다른 호선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박물관은 최초 지하철 개통당시의 지하철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 부다페스트 지하철 노선도



▲ 부다페스트 지하철박물관 관람



▲ 부다페스트 트램 시승



## 2. 부다페스트 FKF 쓰레기소각장(열병합발전소)

- 일 시 : 2015. 2. 24(화) 10:00 ~ 12:00
- 소 재 지 : 1098 Budapest, Ecseri út 8-12
- 연 락 처 : +36 1 459 6750
- 홈페이지 : <http://www.fkf.hu/>
- 담 당 자 : MR. Marosfalvi Zsolia
- 방문지 소개

헝가리 도로 유지 보수 기업인 FKF 회사가 운영하는 쓰레기 폐기물 복구 열병합 발전소로 부다페스트 세대의 약 60% 상당을 담당, 연간 350,000톤 용량을 생산한다. 처리과정에서 재생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에 재공급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및 에너지 요건을 강화하고 최신 표준 기술을 도입하였다.

헝가리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부다페스트 FKF 쓰레기소각장 관계자 설명 정취



▲ 부다페스트 FKF 쓰레기소각장 시설 견학

### 3. 비엔나 슈피텔라우 지역난방 시설

- 일 시 : 2015. 2. 25(수) 17:00 ~ 18:00
- 소 재 지 : Spittelauer Lande 45, 1090 Vienna, Austria
- 방문지 소개

슈피텔라우 지역난방시설은 연간 250,000톤의 도시 고형폐기물을 처리하여 60MW의 증기(지역난방공급) 및 전기를 생산하여 소각시설 자체 전기로 사용하거나 인근 6만여 세대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비엔나시 아파트 37%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

난방 공급시설은 종합 통신망으로 각 내부가 연결되어 있으며 연 평균 6천만 와트의 기본 열량을 생산하고 있다. 가스와 기름을 열처리하는 방식으로 40억 와트의 열난방량을 생산하는 5개의 고온 보일러를 내장하고 있다. 독성 및 발암성이 강한 유기염소 화합물을 제거하는 처리장과 습기 세탁 처리법 및 연기 제거 기술을 1986년과 1989년에 도입하였다.

슈피텔라우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분진이나 유해가스의 제거 기능을 더했다. 매년 수많은 정부 기관과 환경단체에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한다.

시장은 소각장을 예술 작품화함으로써 혐오시설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관광지로 부각시켰다.

인근 아파트는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하여 난방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고, 시민들은 소각장과 친근감도 생겼으며,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비엔나의 명소가 되었다.





▲ 슈퍼텔라우 쓰레기소각장 전경



▲ 슈퍼텔라우 쓰레기소각장 배경 기념 촬영



## 4. 귀싱 에너지 자립마을 및 테크놀로지센터(EEE)

- 일 시 : 2015. 2. 26(월) 13:00 ~ 16:00
- 소 재 지 : EuropastraBe 1, A-7540 Gussing
- 연 락 처 : +43 3322 9010
- 홈페이지 : <http://www.eee-info.net>
- 담 당 자 : Frau DI Bodi Katalin
- 방문지 소개

귀싱은 인구 4300명인 작은 마을로, 예전에는 헝가리 땅이었으나 1921년에 오스트리아에 귀속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45년간 국경분쟁을 벌이다 보니 산업이나 공업시설이 존재할 수 없었고, 일자리도 거의 없었다. 이렇다 보니 인구의 70%가 비엔나를 비롯한 인근 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말에만 귀싱에 머무는 형태였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였던 귀싱은 재생에너지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결과를 중앙정부가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을 통해 부가가치가 지역에 축적되도록 하였다. 5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들이 생겼고, 인구 4,300명인 도시에 무려 1,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순수입만 연간 900만 유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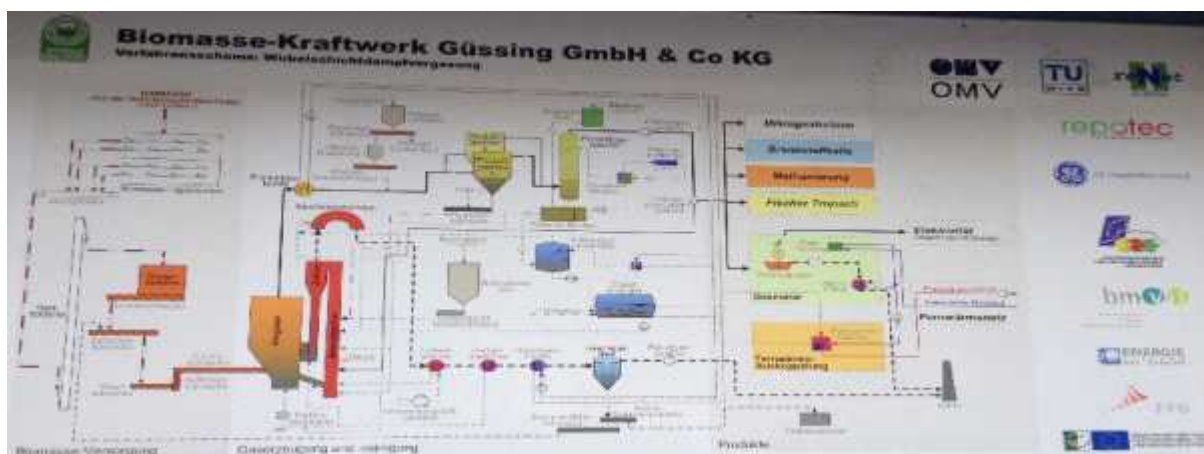
현재 귀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단순히 에너지 자립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현재 귀싱 테크놀로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크놀로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연구개발, 시범사업, 교육(전문직업교육, 유치원/초등학생 교육), 정보제공, 생태관광 등이고, 이곳에는 연간 3만여 명이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외국인들이 1년 동안 지출하는 숙박료만 해도 30만 유로(약 45억원)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러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방문하여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귀성의 모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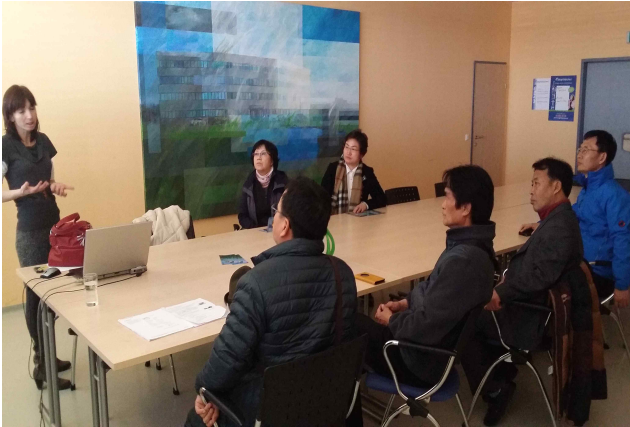


▲ 귀성 목재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연구시설  
(목재를 기화하여 탄화가스를 만들고 열병합발전으로 이용)



▲ 귀성 바이오 매스 열병합발전 설계도  
(나무를 850도로 가열하면 가스화가 진행되는데, 그 가스를 태워서 열병합발전을 한다)





▲ 테크놀로지센터(EEE) 관계자 설명 정취



▲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장방문



## 5. 프라하 하벨 재래시장 현장시찰

○ 일 시 : 2015. 3. 1(일) 14:00 ~ 16:00

○ 방문지 소개

1232년부터 운영된 옛 프라하의 장터로 유일하게 보전된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다양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고 주말에는 대부분 전통 체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 프라하 하벨 재래시장

## IV. 결론(시사점)

선진국 우수시설 및 문화유적 등의 전문사항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7박 9일간 동유럽 3개국을 돌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동유럽은 지상의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경전철 또는 이중궤전버스인 것 같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도심의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문화유산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각 시군에서 문화재와 문화재를 이어주고 관광지를 이어주는 경전철이나 이중궤전버스가 여유롭고 고품스런 관광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에 방문한 동유럽 3개국 어느 한 곳도 전봇대와 전선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상가 건물에 돌출간판 및 대형입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프랭카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지상의 시각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 오스트리아 빈 시내의 관광에 있어 관광버스, 대중교통은 관광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연간 몇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 하다. 체코의 프라하도 바실라프 광장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거리는 심지어 자전거도 안 다닌다. 심지어 관광수입이 국가의 주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를 주차해 놓을 공간조차 마련해 놓지 않아 식사를 하는 도중 관광버스 기사는 주위를 맴돌다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 후 혼자 식사를 했다. 우리의 관광지는 어떠한지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운전기사는 하루 정해진 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여행내내 운전을 맡았던 슬로바키아 운전기사는 이러한 규정을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이었다.